

삼강오륜 출현의 스토리텔링적 배경

최원혁(대진대)

<目 次>

I. 머리말

II. 삼강오륜의 스토리텔링 분석

1. 출현 배경 분석

2. 삼강오륜의 스토리텔링 구조

III. 캠벨 이론과의 비교

1. 캠벨 이론의 구조

2. 삼강오륜과 캠벨 이론의 비교

IV. 맺음말

I. 머리말

동아시아 정신사의 주요 의제였으면서 근대 이후 가장 외면 받아 온 삼강오륜에 대한 관심이 재개 되고 있다. 삼강오륜에 대한 관심이 재개 되는 이유는 정치, 경제, 문화로 구분하여 3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북핵 위기로 냉전 이후 세계 정세가 가장 급격히 오늘날 재편되면서 세계는 다시 동아시아의 정체성에 주목하고 동아시아가 자기 목소리와 색깔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는지 향후 세계 질서에 중요한 관건이 되었기

때문이다.¹ 둘째 경제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성공을 들 수 있다. 빌게이츠가 극찬한 아시아의 힘이라는 책에서 한국 경제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극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한국에 남아 있는 삼강오륜의 종법적 경제 전략이라 한 바 있다.² 셋째, 문화적으로는 한류의 성공을 들 수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류의 성공 배경으로 삼강오륜의 문화가 지목되었다.³ 동아시아 가운데서도 유독 한국 드라마만이 이슬람권까지 널리 공감될 수 있었던 것은 삼강오륜이라는 인류보편적 정서가 한국에 더 강하게 지속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두되었다.⁴ 삼강오륜은 오늘날 나아가 미래 세계의 대안으로까지 주목받고 있다. '미래학의 거장' 짐 데이토(Dator·81) 미국 하와이대 교수는 케케묵은 것으로 평가되어 온 삼강오륜을 미래 시대의 나침반이라고 했다고 한다.⁵

삼강오륜에 대한 재평가의 공통점은 그 시발처가 주로 서양이라는 점이다. 막상 삼강오륜의 시발처인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사강오륜에 대한 재평가가 인식하고 아직도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여전히 삼강오륜은 동아시아 근대화 실패의 주요 원인이며 적폐의 대명사로 논의되어 왔다.⁶

삼강오륜의 재평가가 양극화되고 있지만 양쪽 모두 막상 삼강오륜의 출현 배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삼강오륜의 출현 배경은 삼강오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연구에 의해 그동안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로 지목되어 왔다. 기존의 입장과 연구는 오늘날 반대로 삼강오륜이 동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 엔진이 되고 있는 역설적 현실 앞에 종래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무색해진 실정이다. 또 삼강오륜의 재평가에 호의적인 입장도 삼강오륜의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뿐 이데올로기적 출현 배경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도 독자적인 논의도 부족하다.

이 글은 삼강오륜의 출현 배경을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모색해 봄으로서 기존 이데올로

¹ 삼강오륜과 관계되어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실천적으로 연구해 온 자료는 다음에 잘 정리되어 있다.

현용수, 『유대인을 모델로 한 현용수의 인성교육 노하우』, 동아일보사, 2008. 우준호, 『삼강오륜의 현대적 조명』, 이화, 2007

² 조스터드 웰, 『아시아의 힘』, 프롬북스, 2017, 156-160쪽

³ 박종현, 「한류문화 현상의 종교철학적 기원과 분석」, 『신학논단』76,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2014

⁴ 백원담,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한류』, 서울: 팬타그램, 2010.

⁵ 조선일보 2014.7.7

⁶ 김충열, 『유가윤리강의』, 예문서원, 2010, 14~17쪽

기적 측면의 연구들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측면을 찾아내고 향후 삼강오륜의 미래적 확대 발전에 참고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스토리텔링과 이데올로기의 구분은 무색해졌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이데올로기는 가면을 쓴 스토리텔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이제 내면의 스토리텔링적 출현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⁷

동아시아 이데올로기 중 스토리배경적 출현 배경 연구가 가장 급기시 된 영역은 삼강오륜이었다, 삼강오륜은 공헌도 컸지만 윤리를 넘어 실정법으로 동아시아에 수많은 상처를 남겼기에 전통주의자도 근대주의자도 모두 출현배경을 살피는데 인색했다. 그러나 삼강오륜이 재평가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삼강오륜의 스토리텔링적 출현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연구이다.

실제 유사한 연구가 서양에서는 일찍이 시도되어 유익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조셉 캠벨의 원질신화 이론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조셉 캠벨은 동서양의 영웅 스토리텔링을 모두 모아 공통된 패턴을 찾고 이것을 영웅의 순환이라는 원질신화로 불렀는데 캠벨의 이 이론이 할리우드 영화 시나리오나 게임 산업 시나리오 개발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⁸ 반면 동양에서는 아직 캠벨 이론의 활용이 미지하다. 동양에서 캠벨 이론의 활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서양과 동양의 신화구조가 다소 상이한 점에 있다. 동양의 신화구조는 서양에 없는 종법적 질서라는 개념이 있다. 서양에 없는 종법적 질서는 삼강오륜으로 대표된다. 동양에서는 사물이든 인물이든 이 종법적(宗法的) 질서, 삼강오륜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본능으로까지 주목되는데 삼강오륜이 스토리텔링이라면 왜 동양은 삼강오륜이라는 스토리텔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동양의 종법적 질서에는 서양과 분명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둘을 비교함으로서 동양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2장에서 먼저 삼강오륜의 출현 배경과 구조에 주목하여 삼강오륜의 스토리텔링을 분석 하고자 한다. 다음 3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된 틀을 3장에서 캠벨이론과 비교하여 삼강오륜 스토리텔링의 특징을 찾아내고자 한다.

⁷ 김용석, 『서사 철학』, 휴머니스트, 2009.

⁸ 크리스토퍼 보글러,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서울, 비즈앤비즈, 2013

II. 삼강오륜의 스토리텔링 분석

역사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출현 배경으로서 스토리텔링이 된 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서양의 경우를 보면 고대에서는 그리스 철학, 기독교 사상 근대에서는 민족주의 그리고 서론에서 언급한 캠벨 이론을 들 수 있다. 그리스 철학의 경우 이집트의 천문 사상이 그리스 신화가 되고 다시 그리스 철학이 된 바 있다. 이집트 신화의 뿌리가 되는 오시리스신화는 세트, 호루스, 이시스로 대표되는 신화의 근원 요소인 성부 성자 성신으로 되어 있다. 우보로보스의 원과 같이 성부 성자 성신으로 순환되는 이집트 신화의 스토리텔링은 지수화풍의 순환으로 변경되어 그리스 철학의 배경이 되고 다시 그 중심을 강조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된다. 기독교 사상 또한 애초 천문의 스토리텔링에서 시작된 요소가 예수를 통해 인격화되면서 성부 성자 성신의 형태로 스토리텔링화 된다. 성부 성자 성신은 성부의 죽음이 성자의 부활로 재현되어 우주의 갈등을 해결하고 우주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영웅 순환을 그 틀로 하고 있다. 그리스사상과 기독교 사상은 근대에 마테오리치에 의해 전해진 동양 사상과 결합하여 동양의 삼강오륜이 윤색된 민족주의 신화로 발전하였고 캠벨은 이를 종합해 하나의 원질 신화로 스토리텔링의 전형을 만들어 낸다.⁹

동양 또한 최초 그 문화가 인도에서 들어왔든 그 기원을 불문하고 독자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낸다. 서양의 지수화풍과 같이 최초 천지인 삼재 혹은 천황 지황 인황이라는 성부 성자 성신 구조의 스토리텔링이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태일 신앙이라는 단일한 스토리텔링으로 종합된다. 이는 황제내경을 비롯한 의술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급기야 윤리적 지침인 삼강오륜의 출현에 이르게 된다. 이에 출현 배경과 전개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출현 배경 분석

삼강오륜의 출현 배경에 대한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선행연구는 크게 사상, 문학, 문화의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사상적 연구를 살펴보면 삼강오륜을 지배 이데올로기나 혹은 유교적 긍정 이데올로기로 보는 연구이다.¹⁰ ‘허위의식’

⁹ 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1,2,3』(서울 : 이학사), 2005, pp.155-156

¹⁰ 최근 발표도니 논문은 윤미옥, 「『三綱行實圖』의 儒敎的價值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6.

으로 정의되는 이데올로기 가운데 특히 지배자에게 유리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삼강오륜이 많이 연구된 것은 유교를 부정하고 국가를 세운 중국 공산주의의 영향이 크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친유교로 전향한 중국 공산주의는 기존 연구를 부정하고 있다. 사상적 연구는 부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학적 연구는 삼강오륜 자체보다는 삼강오륜으로 파생된 삼강행실도 등의 문헌적 연구에 집중한다. 이 연구들은 사상적 연구의 결과를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기에 문헌적 연구를 제외하면 사상적 연구와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문화적 연구는 스토리텔링적 요소를 찾는 연구이다 특히 이희덕은 삼강오륜과 연관될 수 있는 천문 기록의 스토리텔링적 출현 배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삼국사기의 수많은 천재지변의 기록이 사실은 재이설(災異設)에 입각한 스토리텔링이었다는 것을 이희덕은 입증하고 있다.¹¹

삼강오륜의 출현이 재이설의 시조가 된 동중서였다는 것은 삼강오륜 출현의 스토리텔링적 배경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희덕은 재이설이 단순히 왕권강화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볼 수 없고 반대로 왕권통제수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당시 재이설을 한무제가 왕권강화의 수단으로 택했다는 종래의 이론은 왜 당시 피지배층의 재이설을 수용했는가에 대한 이론이 부족하다는게 이희덕의 주장이다. 재이설에 나오는 천재지변의 전통, 곧 하늘의 천재지변은 집권자의 덕 부족이라는 재이설은 왕에게 권력 정당화의 근거를 주었던 것 분 아니라 피지배자에게 지배자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했기에 재이설은 성립후에 근대예까지 동아시아 전통의 주요부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삼국사기, 고려사 오행지까지 재이설은 계속 그 영향이 지속된다.

이희덕의 이론은 삼강오륜의 스토리텔링적 출현배경에 주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먼저 삼강오륜의 주창자 동중서가 재이설의 주창자인 동중서와 동이인물이라는 것은 삼강오륜을 재이설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의 연구는 동중서의 삼강오륜을 유교적 지배의 정당화 측면으로만 해석했기에 재이설 측면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재이설에 대한 이해로 삼강오륜이 재해석 되지 못한 데는 재이설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기존 연구는 재이설을 천인감응설이라는 애니미즘적 전통의 하나로 이해하는 데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연구의 집적 결과 당시의 재이설이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진 당시 동양 과학발전의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¹²

오늘날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당시 과학은 오늘날 용어로 프랙탈화 하고 디지

¹¹ 이희덕, 「한국고대사의 자연관과 유교정치사상」, 『동방학지』50, 1986.

¹² 황희경, 「동중서 철학의 과학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성격」, 『현상과 인식 14권1집』, 1990

털화된 음양오행으로 정교화된다. 황제내경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과학성과를 요약해보면 우주는 태극과 음양오행이라는 동일구조를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음양오행은 다시 구궁이라는 9개의 수로 잘 디지털화 되어 있다.¹³ 이를 상수학(象數學)이라고 당시에 불렀는데 이 상수학이 인간의 몸을 포함하여 전 우주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재이는 이 상수학의 질서를 인간의 욕심으로 어겼을 때 생겨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¹⁴ 삼강오륜은 이 상수학의 인간적 대안으로 종래의 유교사상에서 재정당화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삼강오륜의 출현에는 재이설의 구조적 특징이 있었다. 삼강오륜의 출현 배경에 있는 재이설의 구조적 성격은 삼강오륜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2. 삼강오륜의 스토리텔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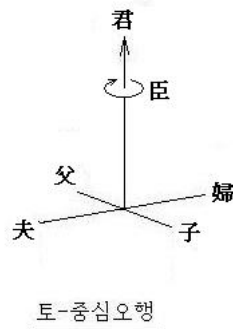
삼강오륜의 스토리텔링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삼강오륜에서 삼과 오가 채택된 수리적 이유, 둘째 강과 룬이라는 글자가 채택된 이유 셋째 부자 부부 등 가족관계가 채택된 이유로 삼강오륜의 출현배경을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삼강오륜의 3과 5는 삼강오륜이 다음과 같은 입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강오륜의 입체구조는 박용규의 입체오행이론에 의하면 이제마의 사상체질로과 황제내경에 잘 나타난다고 한다. .

이제마의 설명을 살펴보면 입체로 음양오행을 대등한 자격의 바탕위에서 수직인 木(仁)↔金(義)이 대응하고 수평인 水(智)↔火(禮)가 대응하면 중심에서 信이 탄생하여 삼강오륜이 된다고 한다 .

¹³ 이기 개념의 시작이 된 황제내경은 제자백가가 다 포함되어 있고 성리학의 발전된 이개념은 불교 화엄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在<内经>一书中,可以看到道家、墨家、名家、阴阳家等 学派的思想痕迹,这是不可否认的事实. 徐仪明,『性理与岐黄』(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7), p.23.

¹⁴ 김희정, 「黃老思想의 天人相應觀 研究: 「黃帝四經」, 「管子」四篇, 「淮南子」, 「黃帝內經」을 中心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그림1] 입체오행으로 본 삼강오륜

부(父)↔자(子)가 수직적으로 대응하고 부(夫)↔부(婦)가 수평적으로 대응하면 중심에 군(君)이 오르게 되고 군(君)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하는 신하(臣下)가 있어 보필해야만 오래 그 위(位)를 보존할 수 있다는 오행의 상생적 원리이다.¹⁵

삼강오륜은 德을 이루는 오행의 상생(相生; 수직적인 관계)과 상극(相克; 수평적인 관계)의 원리에서 출발하고 있어서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仁義禮智가 평형조건으로 만나야 된다. 水克火, 火克金, 金克木, 木克水에서만 신(信)의 덕목이 중심에서 입체로 탄생하게 된다. 이 입체가 삼강오륜의 중심을 이루는 자미성 곧 임금이 된다. 임금은 결국 출현되는 존재이지 먼저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다만 임금이 없으면 순환이 멈춘다.

오상이란 인의예지신으로 부자간의 친은 인, 군신간의 의는 의리, 부부간의 별은 지, 형제간의 서는 예, 친국간의 신이 됨으로서 오륜은 인의예지신 오상과 같았기에 삼강오륜은 삼강오상이라고도 불리웠다.¹⁶ 3은 순환을 이루는 3가지 축이 되고 5는 순환을 이루는 5가지 요소가 된다. 중심과 아래로 내려는 재상(宰相)의 화, 상화(相火)를 합치면 7이 된다.

둘째 강(綱)과 룬(倫)이라는 글자가 채택된 이유는 원래 '벼리'(綱)는 규제하여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각각 임금은 신하의, 아버지는 자식의, 지아비는 지어미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왜 이름을 삼강의 강이란 이름을 붙여을까. 자미성(태일)을 따라 별이 움직이는 동양천문의 이야기가 삼강오륜과 같다는 것이다. 당시 밤하늘의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임금의 뜻에 신하가 움직이는 것으로 서로 의미가 교차되었다. 위 입체 모델이 하늘 천문에 적용되어 강륜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이다. 삼강오륜은 따라서 별자리 순환을 내포하고 있다. 당시 별자리를 대표하는 것은 칠성이었고 칠성은 상수

¹⁵ 박용규, 『한국적 가치 지형도 탐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제4회 AKS포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년

¹⁶ 윤미옥, 「『三綱行實圖』의 儒敎的價值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6.

학의 원리에 따라 숫자와 역할이 정해졌다. 상수학은 마방진을 원으로 표현한 무한중첩순환 구조였기에 벼리의 주변을 도는 별 칠성도 각각 역할이 필연적으로 책정되었다.

	탐랑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팔괘수	수(1,6)	화(2,7)	목(3,8)	금(4,9)	토(5,10)	수(1,6)	화(2,7)
하도수	수	토	목	화	토	금	금
팔괘	감	곤	진	손		건	태

[표1] 칠성의 팔괘 배속표

칠성은 순환의 역할에 따라 이름 지어진다. 칠성은 칠요(七曜)와 합쳐지며 인간의 운명적 순환을 주관하는 본명성이 된다.¹⁷ 칠요는 일월목화금수토이다.¹⁸ 따라서 일월에 해당하는 중심인 주인공(탐랑, 日, 천, 1성)를 중심으로 적대적 수평축을 이루는 (거문, 地, 月, 2성)과 파군(금, 7성) 그리고 우호적 수직축인 (화, 녹존, 3성), 전령(수, 문곡, 4성), 중립적 중심축인 염정(토, 5성), 자율적 존재 무곡(목, 6성)이 된다.¹⁹ 탐랑, 거문 등 각각의 이름에는 인간의 7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

재이설과 같이 삼강오륜도 이 질서를 지켜야 길흉화복을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삼강오륜의 출현배경이었다. 삼강오륜은 유교적 요소 뿐 아니라 도교적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다. 상명하달뿐 아니라 하의상달의 형식, 곧 수평과 수직이 모두 조화되어 있었다.

¹⁷ 김만태, 「성수신앙의 일환으로서 북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 『동방학지』제159집, 2012년, 163-164쪽

¹⁸ 실제 북두7성의 이름은 당나라 때 바라문승이 번역한 『불설북두칠성연명경』에 수록되어 있던 것이라고 한다. 이 경에서는 북두칠성의 일곱별에 각각 탐랑·거문·녹존·문곡·염정·무곡·파군 등의 이름을 붙이고 이들을 동방의 일곱 세계를 주재하는 일곱 여래(如來)로 묘사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부적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김만태, 「성수신앙의 일환으로서 북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 『동방학지』제159집, 2012년, 158 -159쪽) 7성의 이름은 인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오현진, 「紫微斗數 研究- 成立 背景과 理論的 土臺를 中心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년, 55-57쪽)

¹⁹ 강진원, 『易으로 보는 동양 천문 이야기』, 정신세계사, 2006년, 131-139쪽 참고

셋째 부부, 부자, 형제로 한정된 이유는 이 3가지 관계가 성부, 성자, 성신처럼 모든 인간 관계와 우주자연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현대 한국문학치료이론에 잘 나타나 있는 바 오늘날 문학치료이론에서는 세계의 모든 서사를 부부, 부모, 자녀, 남녀 4가지 서사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한다.²⁰

삼강오륜과 관련하여 문학치료의 스토리텔링 개념 축을 살펴본다면 “나-세계”개념이 가족 관계와 관련해서 수직 축을 이루고 소망-법칙이 가지는 대칭성의 개념이 수평축을 이루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문학치료의 서사 개념을 큰 특징부터 살펴보면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른 서사 구분이 개인과 세상, 소망과 법칙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적으로 나타난다. 삼강오륜의 스토리텔링 구조가 실제 서사에 나타나고 세상의 서사가 모두 삼강오륜의 서사에 포함되고 있음을 현대문학이론인 한국문학치료이론이 보여주고 있다.

먼저 수직-수평구조를 살펴보면 “나-세계”의 개념은 가족관계에서 부모-자식간의 수직관계와 부부-남녀사이의 수평관계로 나타난다. 문학치료에서 서사는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자녀서사-남녀서사-부부서사 순으로 발전한다. 이 순서와 소망-법칙이 축을 이루며 순환한다. 각 단계는 양육(①세상법칙) 발전 선택(③세상의 소망) 순으로 진행된다. 자식에게 부모는 세계가 되고 남편에게 아내는 세계가 된다. 따라서 ①자녀서사에서 자식에게 세계인 부모는 수직적으로 나타나고 ③부부서사에서 부부는 수평적으로 나타난다. 결국 ②남녀와 ③자녀와 ④부모 지속 보다 수평적이라 할 수 있다.

	나	세상
소망	②남녀	③부부
법칙	④부모	①자녀

[표2] 현단계 서사별 초점

²⁰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2008, 272-273면.

	나	세상
소망	①자녀	②남녀
법칙	③부부	④부모

[표3] 다음발달단계 서사별 초점

[그림2] 문학치료의 삼강오륜

다음 소망-법칙이 가지는 대칭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법칙이 양쪽에 균형을 맞추는 호혜성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다면 소망은 일방의 욕망을 강조하므로 법칙이 소망에 비해 더 대칭적이라 할 수 있다. 대칭적이란 한쪽을 다른 한쪽으로 바꾸었을 때 변화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같은 수평적 서사인 ②남녀서사와 ③부부서사도 소망을 강조하는 ②남녀서사보다 법칙을 강조하는 ③부부서사가 더 대칭적이라 할 수 있다. 문학치료의 다음발달단계 서사별 초점은 수직-수평 수직과 수평은 종적인 상하관계, 횡적인 좌우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캠벨은 작품의 공간을 영웅이 출발하는 종적인 상위의 공간과 영웅이 자신을 회복하는 횡적인 하위의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구조주의에서는 또한 수직적인 공시적 계열체와 수평적인 통시적 계열체로 구분한다. 같은 대칭성도 종적인 관계인 시간의 축인 통시성에서의 대칭 혹은 상하관계에서의 대칭과 횡적인 관계인 공시성에서의 대칭은 다르다. 억압적으로 보이는 수직적인 관계가 사실은 민주적으로 보이는 수평적인 관계보다 협력적일 수 있다. 수직적 대칭성과 수평적 대칭성은 마테 블랑코의 대칭성 정신분석이론에 기반했다.²¹

문학치료의 측면에서 본다면 수직-수평은 세상과 나, 대칭-비대칭은 법칙과 소망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²² 다만 둘을 일대일 대응하면 소망과 법칙, 세상과 나는 각각 경우에 따라 역전된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의 삼각관계에서 의식은 아버지와 아들의 비대칭을 합리적이라 느끼지만 무의식은 대칭을 합리적이라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망-법칙, 세상-나는

²¹ 나카자와 신이치,『대칭성 인류학』, 동아시아, 2004. 128~129면, 필 멀런, 『무의식』, 이제이북스, 2004. 86~91면)

²²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2008. 265~266면

문학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며 일관성과 내면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대칭-수평의 축이 이해에 도움을 준다. 문학치료가 다른 문학이론에 대해서 가지는 장점도 표면적인 텍스트와 심층적인 자기서사가 서로 대립 충돌하는 부분을 잘 조명하는데 있다 할 수 있다.²³

다음은 이 삼강오륜의 스토리텔링구조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서양의 캠벨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캠벨 이론과의 비교

1. 캠벨 이론의 구조

주지하다시피 캠벨 이론은 오늘날 헐리우드와 게임시나리오 제작의 교과서로 통하고 있다. 조셉 캠벨은 수천 개의 신화를 분석한 결과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아버지-어머니-아들관계에서 아들이 오이디푸스콤플렉스를 이겨나가는 과정처럼 크게 "Departure", "Initiation", "Return"으로 3부분으로 이루어진 단일신화로 볼 수 있다고 한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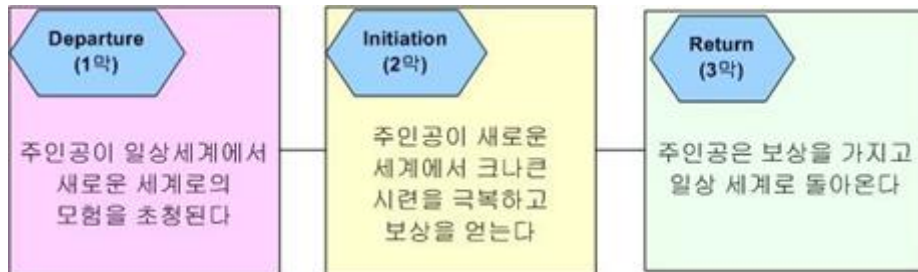
"Departure"은 일상 세계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영웅이 재구성된 세계로부터 부름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웅은 일상 세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새로운 세계로부터 어떠한 부름을 받게 된다. 대개의 경우, 영웅은 그 부름에 대해 거절을 하게 되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의 모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서사다.

"Initiation"은 본격적인 모험을 하게 되는 부분의 서사를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웅이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를 구할 보상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영웅이 시련을 겪게 되고 장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된다. 가장 커다란 시련의 경우에는 대

²³ 정운채, 「 리몬케넌의 서사이론과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18집, 2011. 273~289면)

²⁴ 조셉 캠벨은 '세상 모든 이야기(신화, 설화, 민담, 영화 등)에는 일반적인 기본 구조가 있고, 이것들은 다 비슷하다'라는 주장을 자신의 저서인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을 통해 발표하게 된다. 노해선, 「영웅 서사를 바탕으로 한 MMORPG에서의 서사 방법 연구」, 상명대학교 디지털미디어대학원 국내석사논문, 2008 pp12~14.

상이 극복하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나 죽음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영웅은 그 시련을 이겨내고, 세상을 구할 보상을 얻게 된다.²⁵



보다 세부적으로 세 단계는 열 두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출발 단계>

- 보통세상
- 영웅에의 소명
- 소명의 거부
- 조연자와의 만남
- 관문 통과

<입문-관문의 통과>

- 시험, 협력자, 적
- 심연에의 접근
- 시련의 길
- 보상

²⁵ 노해선, 같은 글, pp12~14.

<귀환>

- 귀환
- 부활
- 묘약과의 귀환

동양의 삼강오륜이 중법적 질서를 추구하는 반면 캠벨의 이론은 오이디푸스콤플렉스의 융 심리학적 극복, 곧 대극의 수평적 합일을 추구한다. 따라서 각각의 단계는 오이디푸스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신화 속 신명들이 예비해 놓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캠벨은 참된 영웅은 우주가 일치되었음을 느낄 때 자신이 살던 원래의 현실세계로 되돌아오려 하는 반면 종교적 구도자들은 그 세계에 머물러 하는 것이 참된 영웅과 종교적 구도자들의 차이라고 한다. 신화적 영웅은 자신이 살던 세계를 떠나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귀환에 해당하는 여신과의 결혼 또는 어머니와의 결혼이라는 마지막 모험을 치르는 과정에 이른다.²⁶ 캠벨 신화가 말하는 단일신화는 실제 수많은 할리우드 시나리오와 게임 스토리로 많은 검증이 이루어져 있다.

캠벨의 영웅서사에서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나타나는 출발-입문-귀환이라는 구조는 캐릭터라는 측면에서는 아버지-어머니-아들 혹은 생산자-전사-종교인이라는 3기능체제와 3기능을 담당하는 7명의 캐릭터로 나타난다 할 수 있다.

먼저 7명의 캐릭터를 살펴보면 캠벨은 단일 신화가 가지는 서사의 순환구조에서 7명의 캐릭터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캠벨의 단일신화에 나타나는 7명의 캐릭터는 주인공, 정신적 스승, 관문 수호자, 전령관, 변신자제자(트릭스터), 그림자, 장난꾸러기이다. 캠벨의 영웅성사가 수많은 영화와 게임에서 검증되었듯 7명의 캐릭터가 가지는 보편성 또한 많은 작품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중국의 문학회론』으로 저명한 스탠포드대 유약우(劉若愚)는 중국의 문학회론은 주역의 형이상학으로 대표될 수 있다고 한다.²⁷ 캠벨의 신화 이론을 할리우드 영화의 시나리오 대본 지침으로 만든 보글러와 보글러의 이론을 실제 영화비평에 적용한 보이틸러는 캠벨의 신화 이론을 12단계의 순환과 7캐릭터로 요약했다. 12단계와 7캐릭터는 다음과 같이 종합된다. 먼저 12단계는 1.보통세상 : 관객들이 영웅을 만나고, 영웅의 야망과 한

²⁶ 김현자, 「캠벨의 신화론」, 『종교와 문화 Vol..No.6』,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0, pp.58~59

²⁷ 이세동, 「주역의 문학회론-문(文)·도(道) 관계론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제30집, 1997년, 1-6쪽

계를 알게 되고, 영웅을 받아들이고 동일시함으로써 영웅과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2. 모험에의 소명 : 영웅은 떠밀려서 탐색의 여행에 오르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도전에 직면한다. 3. 소명의 거부 : 영웅은 망설이거나 공포를 드러낸다. 4. 조연자와의 만남 : 영웅은 확신, 경험, 지혜의 원천과 접촉한다. 5. 관문통과 : 영웅은 모험을 받아들이겠다고 천명하고 '특별한 세상'으로 들어간다. 6. 시험, 협력자, 적 : '특별한 세상'에서는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도록 영웅을 이끌어주는 상황과 사람들. 7. 접근 : 실패하고 좌절한 세력들 또는 죽음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핵심이 되는 전투를 준비하는 단계. 8. 시련 :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위기로 영웅이 최대의 공포와 맞서고 죽음을 맞본다. 9. 보상 : 영웅이 다시 태어나서, 공포와 죽음을 극복한 데에 대한 보상을 만끽하는 순간이다. 10. 귀환 : 영웅은 모험이 끝났음을 천명하고 '특별한 세상'을 떠나거나, '특별한 세상'에서 벗어나려다가 추격을 당한다. 11. 부활 : 고향으로 돌아오는 관문에서 영웅을 정화하고 속죄와 변신을 겪게 하는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시험. 12. 묘약과의 귀환 : 영웅이 귀환하여 그가 여정에서 얻은 것을 나누고, 이로써 친구들과 가족, 공동체 그리고 세계가 득을 본다.

다음 7캐릭터는 1. 영웅 : '봉사하고 희생한다.' 2. 조연자 : '이끌어준다.' 3. 관문수호자 : '시험한다.' 4. 전령 : '경고하고 자극을 준다.' 5. 변신자재자(變身自在者) : '이의를 제기하고 속인다.' 6. 그림자 : '파멸시킨다.' 7. 트릭스터 : '혼란을 일으킨다.' 이다.²⁸

7명의 캐릭터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다시 주인공을 중심으로 주인공을 지지하는 편과 주인공을 반대하는 3기능으로 나뉘어진다. 변신 자재자, 그림자, 장난꾸러기가 형식상 주인공과 대립되는 형태로 나와 공감한다면 정신적 스승, 관문 수호자, 전령관은 동조하는 형태로 주인공과 공감한다.

기존 캠벨의 신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일 서사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캠벨의 신화가 가지는 순환구조가 천문과 관련하여 더 주목받고 있다. 먼저 천문과 캠벨 신화와의 관련성은 동서양에 걸쳐 나타난다. 서양 천문의 경우 캠벨 영웅신화의 주인공은 모두 서양의 별자리가 되고 동양 천문의 경우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는 동양 별자리 전체가 캠벨 영웅 신화의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

캠벨 영웅신화의 천문이라는 측면을 순환이라는 구조에서 살펴보면 캠벨 영웅신화가 가지는 3기능을 하는 7명의 캐릭터로 나타는 서사의 구조는 순환이라는 3과 7이라는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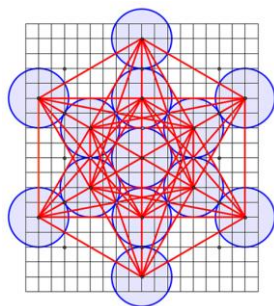
²⁸ S. 보이탈라. 『영화와 신화』, 서울, 을유문화사, 2005, 26-46쪽

환구조의 틀로 해석될 수 있다. 캠벨의 영웅신화는 3기능을 하는 7명의 캐릭터로 나타나므로 순환의 최소구조는 3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바 3이 만드는 순환은 다시 7이라는 축으로 구성된다 할 수 있다. 3기능체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나의 편이 다시 3기능으로 나의 적대편이 다시 3기능으로 분화하면 7이 된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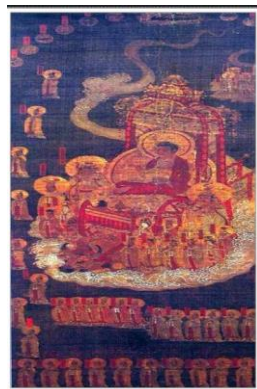
캠벨 영웅신화에서 보듯이 세계의 신화는 모두 3과 7이라는 공통요소를 가지고 있다. 3은 특히 시간, 7은 공간구조와 연관이 있다. 캠벨의 영웅신화는 천문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반영되므로 동서양의 천문 또한 3과 7이라는 우주의 순환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2. 삼강오륜과 캠벨 이론의 스토리텔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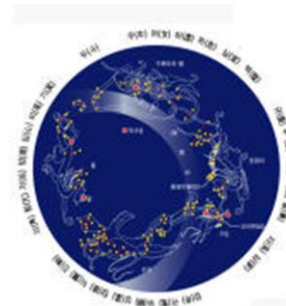
삼강오륜과 캠벨이론의 공통점은 모두 별자리에 기원을 둔 스토리텔링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영웅의 순환이라는 캠벨 신화의 모티브는 우주의 순환에서 왔지만 표면적으로는 별자리의 순환에서 나눈다. 동양의 삼강오륜도 태일(太一)이라는 북극성을 둘러싼 7성의 순환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3, 7이라는 구성요소에서도 캠벨과 삼강오륜은 서로 중첩된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양 사상에 북두칠성이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라는 12개의 생장염장 우주 중첩 순환에서 탐랑-문곡-거문-녹존-염정-무곡-파군과 같이 나타나는 것은 캠벨 영웅신화의 순환구조에서 7명의 캐릭터가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실제 7성의 별자리에서 탐랑-문곡-거문-녹존-염정-무곡-파군이 나타내는 성격은 캠벨의 단일신화에 나타나는 7명의 캐릭터는 주인공, 정신적 스승, 관문 수호자, 전령관, 변신자재자(트릭스터), 그림자, 장난꾸러기와 유사하다. 고전적인 그림들을 바둑판으로도 옮겨 놓으면 다음과 같다.



[그림3] 메타트론 큐브



[그림4] 칠성



[그림5] 사진도

캠벨의 7캐릭터와 삼강오륜의 7성을 상세히 비교한다면 일월에 해당하는 중심인 주인공(탐랑, 日, 천, 1성)을 중심으로 적대적 수평축을 이루는 관문수호자(거문, 地, 月, 2성), 적대자(파군, 금, 7성) 그리고 우호적 수직축인 조연자(화, 녹존, 3성), 전령(수, 문곡, 4성), 중립적 중심축인 트릭스터(염정, 토, 5성), 변신자재자(무곡, 목, 6성)가 된다. 따라서 거의 형식적으로는 차이점이 없다.

삼강오륜과 캠벨이론의 차이점은 종법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의 내용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형식보다는 내용과 관계된다. 삼강오륜은 수직성을 더 강조함으로써 세계에 질서를 더 부여하고 세계를 상생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삼강오륜의 종법적 질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는 원대라는 표현이다. 원대의 대(戴)는 “실어준다”는 의미로 춘추변로에 신하의 자세로 표현된다.²⁹

자미성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우주라는 삼강오륜의 모티브는 당시 인문 사회 자연과학 전 분야에 걸친 성과의 종합이었다. 기존과학은 삼강오륜으로 종합되고 다시 삼강오륜을 통해 확대되었다. 삼강오륜의 확립이후 궁궐과 전각의 배치도 모두 천문의 자미원과 북두칠성을 배경으로 지었다. 모든 문물제도와 학문에서 모티브가 반복되었다. 삼강오륜은 하도낙서라는 프랙탈과 디지털로 이루어진 과학의 원리에 따라 서양이 들어오기 전까지 주요 사회 원리로 자리 잡았다. 삼강오륜이 형식화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출현의 스토리배경도 잊혀 졌지만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실천되었다.

삼강오륜의 측면에서 캠벨 신화이론을 본다면 캠벨 신화 이론은 종법적 질서가 부재하여 전체적인 순환을 완성시키지 못한다. 실제 오늘날 캠벨 신화이론과 같이 개개인은 모두 영웅의 순환을 하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삼강오륜을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미래 세계의 이정표로 지목한 것은 종법적 순환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²⁹ 윤미옥, 「『三綱行實圖』의 儒敎的價值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6. 48쪽

IV. 맺음말

오늘날 삼강오륜의 스토리텔링적 배경이 가지는 의의는 고전의 원이라는 개념의 수용에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원으로 대표되는 순환은 모두에게 기회를 부과해주는 일상 지배의 원리였다. 세계가 상업화되면서 원의 공평성은 불신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원의 순환을 믿고 미래를 기회하기 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삼강오륜은 이 자연의 순환이 상업세계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자본주의의 침입 후 동양도 이 문제에 골몰하여 많은 종교가 전통을 통해 회복하고자 했다. 삼강오륜은 처음에는 근대 서양의 도래 이후 동양을 퇴보시킨 전근대적 이데올로기로 비판받았지만 다시 자연의 순환을 회복시켜준다는 점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오늘날 삼강오륜은 확대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출현배경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삼강오륜은 당시 학문의 집결체였다. 주역도 그 배경에 있었다. 당시 삼강오륜은 한의학의 원리로 만들어 졌고 한의학도 스토리텔링적 배경이 있었다. 완전한 논의는 아니지만 삼강오륜 출현의 스토리텔링적인 현대적 재해석도 계속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 강진원, 『易으로 보는 동양 천문 이야기』, 정신세계사, 2006년
- 김만태, 「성수신앙의 일환으로서 북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 『동방학지』 제159집, 2012년.
- 김용석, 『서사 철학』, 휴머니스트, 2009.
- 김충열, 『유가윤리강의』, 예문서원, 2010
- 김현자, 「캠벨의 신화론」, 『종교와 문화 Vol..No.6』,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0
- 김희정, 「黃老思想의 天人相應觀 研究 : 「黃帝四經」, 「管子」四篇, 「淮南子」, 「黃帝內經」을 中心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나카자와 신이치, 『대칭성 인류학』, 동아시아, 2004
- 노혜선, 「영웅 서사를 바탕으로 한 MMORPG에서의 서사 방법 연구」, 상명대학교 디지털미디어대학원 국내석사논문, 2008
- 박용규, 『주역에서 침술까지』, 태웅출판사, 2006.
- 박종현, 「한류문화 현상의 종교철학적 기원과 분석」, 『신학논단』 76,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2014
- 백원담,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한류』. 서울: 팬타그램, 2010.
- 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1,2,3』(서울 : 이학사), 2005, pp.155-156
- S. 보이틸라. □영화와 신화□, 서울, 을유문화사, 2005
- 윤미옥, 「『三綱行實圖』의 儒敎의 價値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6.
- 오현진, 「紫微斗數 研究- 成立 背景과 理論的 土臺를 中心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년
- 우준호, 『삼강오륜의 현대적 조명』, 이화, 2007
- 이세동, 「주역의 문학기론-문(文) · 도(道) 관계론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30집, 1997년
- 이희덕, 「한국고대사의 자연관과 유교정치사상」, 『동방학지』 50, 1986.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2008,

_____, 「리몬케년의 서사이론과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18집, 2011

조스터드 웰 , 『아시아의 힘』, 프롬북스, 2017.

크리스토퍼 보글러,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서울, 비즈앤비즈, 2013

필 멀런, 『무의식』, 이제이북스, 2004.

현용수, 『유대인을 모델로 한 현용수의 인성교육 노하우』, 동아일보사, 2008.

황희경, 「동중서 철학의 과학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성격」, 『현상과 인식 14권1집』 ,
1990

徐仪明, 『性理与岐黄』,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7